

임용 절벽에도 전남 도서벽지는 안가요

초등교사 모집 올해도 미달...51명 모집에 17명 지원 그쳐 전남도교육청 지난해 국감서 지적 받고도 제도 개선 미흡

전남 도서벽지 초등교사 모집 전형은 올해도 지원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시·군 부속도서와 해남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8년을 의무 근무해야 하는 지역단위 모집에서는 선발 인원은 51명이었으나 지원자는 17명에 그쳤다.

도서벽지 기피 현상 이전에는 '우리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남교육청의 체념 섞인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위원들이 전남교육청을 지목해 '도서벽지 교사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주문했음에도 제도 개선 노력 등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

았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한 2019학년도 전남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접수결과, 총 403명 선발에 896명이 지원했다. 전체 경쟁률은 평균 2.22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모집 구분별로 따져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유치원 교사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52명 모집에 452명 지원)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초등교사는 320명 모집에 295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전남은 초등교사 모집을 일반·장애·지역단위 등 3가지로 구분하

는데 미달을 피한 것은 일반전형 뿐이다. 248명 모집에 276명 지원, 경쟁률 1.11대 1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른바 도서벽지 전형으로 불리는 지역단위 모집의 고질적 미달사태다. 올해는 51명 정원에 17명만 지원했고 지난 2017학년도 역시 26명 모집에 15명, 2016학년도에도 34명 모집에 8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런 점을 들어 지난해 전남교육청 국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유인책을 세워 도서벽지 교사 수급 문제를 해소하라는 주문이었다.

엮핏 보면 교통·문화·의료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정주여건이 뒤쳐지는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전남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는 개선 여지가 작아 보인다.

교육청 내부에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은 한 두해 이어진 것도 아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통 사항"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데, 신규교사 모집 공고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달리 의무근무 기간 축소, 도서벽지 신규 교사 근무 가산점 부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 노력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접수 결과만 보자면 매년 지원 미달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의 인식 개선으로 실제 도서벽지 근무 교사 충원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다"며 "모집 공고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미달사태를 피하기 위해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등 인사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당콩 수확체험~신나는 동심 10일 오후 광주 남구 원산동의 친환경 농산물 체험학습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당콩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경영난 여행사 폐업 속출 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근 출혈경쟁에 따른 자금난으로 여행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탐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등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773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96건)보다 무려 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 탐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손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 이유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년 영암군 다채로운 기념행사

영암군이 '호남의 금강산'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연다. 군은 "오는 26~27일 기찬랜드에서 월출산 국립공원 미래 10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등 기념행사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26일에는 기찬랜드 가야금 산조기념관에서 월출산 보호와 관광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이 열리고 27일에는 천황사에서 구름다리까지 등반하는 월출산 산악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버스킹 공연과 큰바위얼굴 예코백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 또 3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다음달 11일부터 월출산 국화축제가 열린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5	달뜨기	08:25
해질	18:03	달짐	19:41

찬바람 땀 뻘
남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9/17	보성	구름많음	6/17
목포	구름많음	12/17	순천	맑음	9/18
여수	구름많음	11/18	영광	구름많음	9/17
나주	구름많음	8/18	진도	구름많음	10/17
완도	구름많음	10/18	전주	구름많음	8/17
구례	맑음	6/17	군산	구름많음	8/16
강진	구름많음	9/18	남원	맑음	7/16
해남	구름많음	8/18	축산도	구름많음	14/17
장성	구름많음	8/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부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지외선
좋음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2	08:32
	20:55	20:55
여수	03:54	10:24
	16:22	20:31

◇주간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	☀	☀	☀	☀	☀	☀
7/18	7/20	8/21	9/22	9/21	9/21	8/20

내일 더 춥고 첫 서리...내주초까지 쌀쌀

당분간 광주·전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4~7도 가량 낮은 추운 가을날씨가 이어지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 분포로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더 떨어지겠다. 이날 구례·곡성·보성 아침기온은 4도, 해남 5도, 광주 7도 등으로 완도·여수·목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0도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 12일 첫서리 가능성이 크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말과 휴일인 13~14일 기온도 평년보다 2~5도 가량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비소식 없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20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전했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크고 일교차 또한 클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 분포로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더 떨어지겠다. 이날 구례·곡성·보성 아침기온은 4도, 해남 5도, 광주 7도 등으로 완도·여수·목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0도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 12일 첫서리 가능성이 크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말과 휴일인 13~14일 기온도 평년보다 2~5도 가량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비소식 없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20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전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울대 연구팀 대장암 전이 비밀 풀어... "주변세포와 상호작용"

서울대는 약학대학 이정원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 세포가 주변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통해 암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공동 배양하는 실험을 통해 대장암 세포에서 발견되는 합성효소가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를 변형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암세포 주변의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 등이 대장암 세포의 전이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에 연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학생 4명중 3명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몰라요"

■초중고 3164명 역사인식 조사
70% "학생독립운동은 알아"

광주 초·중·고교생 4명 중 3명은 국가 기념일인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최근 광주 초·중·고교생 3164명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 역사인식 조사 결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인지도는 25.8%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

다. 초등학생 25.0%, 중학생 25.8%, 고등학생 26.6% 등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는 70.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3·1 운동(89.0%)보다는 낮았지만 6·10 만세운동(34.3%)보다 훨씬 높았다. 1929년 11월 3일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 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게 된 경로는 수업시간 49.9%, 영상·인터넷 검색 31.9%, 기념관 방문 14.5%, 기념 행사 참여 3.3%였다. 기념관 방문 경험에 있는 학생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 연해주에 위치한 350여개 학교 학생이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으로 북한 소재 학교 120곳도 참여했다"며 "내년 90주년을 앞두고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알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전국 4대 스마일센터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